

어물쩍 넘기면 '대물림'... 부부폭력은 '범죄' 인식 개선을

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㉑ 부부폭력

배우자에 폭력당한 비율 女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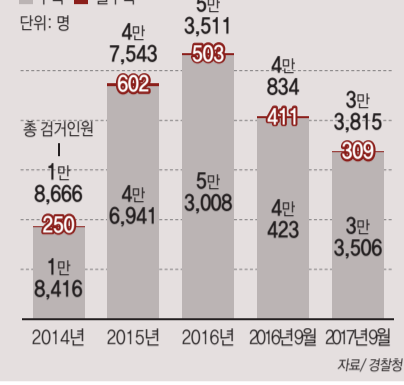
법개정에 '피해자 보호대책' 늘어 생계비 등 피해자지원 최대 3개월 정부, 가정폭력 규정·교육해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41.2%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29.6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14.8
자녀들을 생각해서	7.3
배우자가 전과자가 될까봐	3.2
배우자의 복복이 두려워서	2.8
신고하면 이혼하게 될까봐	0.8
기타	0.2

가정폭력 검거인원과 조치현황



사립'을 신설해, 기존 형사과가 일반 폭력 사건과 함께 처리하던 가정폭력 사건을 전담케 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 출입과 조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가해자가 격리·접근금지 등 경찰의 긴급입시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구성원이 폭력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지면 지자체가 주거 공간과 생계비, 의료 등을 지원한다. 지원은 처음 한 달 간 이어지지만, 1개월씩 두 번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가정폭력 상담소는 지난 1월 기준으로 전국 208개소가 설치돼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66곳이다.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은 315곳이다.

인수형 제다움 심리상담카페 소장은 "가정폭력의 원인에는 가부장제 국가인 한국이 전쟁을 겪은 이후 젊은 남성이 더욱 귀해진 배경도 있다"며 "이웃집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그 옆집이 줄줄이 따라하는 전염 현상은 현재 장년층이 어린 시절 겪은 장면"이라고 말했다.

인소장은 "정부가 세대를 가리지 말고 무엇이 가정폭력인지를 명확히 규정해 교육해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은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내용을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 양상과 동일시 하기 쉽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1. A씨는 48년 동안 남편의 폭력을 견뎌왔다. 남편은 신혼 때부터 A씨의 목을 졸랐고, 쓰레기를 버리러 다녀와도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했다. 지적 장애가 있는 둘째 아들 역시 저항하지 못했다. 병원까지 찾아와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는 112에 전화했다. 경찰이 즉각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고, A씨는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사례집 '꿈을 그리다').

#2. B(44)씨는 간호사인 아내 C(41)씨로부터 매일 폭언을 듣는다. 신혼 시절에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자녀가 생기고 사업이 실패로 끝난 상황이다. C씨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고생시킨 아버지의 모습과 남편의 모습을 동일시 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가정폭력 예방·극복을 위해 부부 간 폭

력 피해 사실이 '창피하다'는 인식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인식이 명확해야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고, 피해를 어물쩍 넘기면 자녀에게 폭력이 대물림된다는 설명이다.

4일 경찰대 산하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9월 3만5004명이던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지난해 9월 2만8866명으로 줄었다. 2016년 여성가족부의 '전국가정폭력 실태 조사'에서도 2013년 37.5%였던 부부 폭력률이 2016년 14.1%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정이라는 공간은 독립적이고 피해 사실이 외부에 쉽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해가 반복되기 쉽다.

◆가정폭력, 참으면 대물림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 6000명(여성 4000명)이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학대받은 경험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물리적 폭력이었다.

이들은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듣거나(29.6%)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맞은(48.1%)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부모가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는 응답은 18.3%에 달했다. 아동기에 부모끼리 욕설과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33.2%)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12.7%) 상황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이어졌다.

이후 부부가 되어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한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2016년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한 비율은 여성이 12.1%였다. 남성의 배우자 가해율은 11.6%였다. 여성은 9.1%로 비슷했다. 다만 연구를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대부분 남성이 폭력을 시작(남편 48.4%·아내 15.8%)하는 만큼, 여성의 가해율에는 남편의 폭력에 맞대응하는 비율이 포함됐다고 해석했다.

부부 폭력은 정신적 상처로 이어진다.

피해 여성의 절반인 45.1%(남성은 17.2%)가 배우자의 폭력으로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답했다.

반면 피해자의 신고 의지는 약한 편이다. 응답자의 66.6%(여성 63.9%·남성 70.7%)가 배우자의 폭력 행위 당시 '그냥 있었다'고 답했다. 반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1%에 머물렀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9.6%)였다. 연구원은 여전히 사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가정폭력에 대해 "사회적 문제이자 범죄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고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에 가정폭력 교육 시급

경찰이 가해자 앞에서 속수무책이던 과거와 달리, 수차례 법 개정이 이어지면서 피해자 보호 대책이 늘어났다. 경찰은 2015년 전국 경찰관서에 '여성청소년수

한우 마리당 생산비 23만5천원 줄었다

농진청, 사육기간 3개월 줄여 맛·육량 유지 사육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은 한우고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출하 기간을 앞당기고도 맛과 풍미, 육질과 육량을 유지하는 '한우 사육 기술'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한우 농가의 대부분은 마블링(근내지방)이 많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평균 31개월간 키우는 고비용 사육을 하고 있다. 이에 수입 소고기와 품질을 차별화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이 미국산 소고기보다 1.7배 높다. 우리나라 소고기 자급률은 가격 경쟁과 수입 소고기의 관세 인하 등으로 2013년 50.1%에서 2017년 41%로 떨어지고 있다.

이번에 농진청이 개발한 기술은 사육 단계마다 영양소 함량을 정밀 조절하는 것으로, 비육 기간이 기존 31개월에서 28개월로 3개월 짧아졌다.

식 평가에서도 28개월 한우는 단맛, 감칠맛, 풍미 면에서 31개월 한우와 차이가 없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한우 1마리당 생산비를 23만5000원 정도 줄일 수 있다. 국내 거세한우 전체에 적용하면 한 해에 약 936억 원 가량 생산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생산비가 줄어들면 소비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한우고기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이 기술을 특허출원하고 산업체와 생산자 단체에 이전했다.

양창범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한우고기 품질은 높이고 생산비는 낮추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입 소고기와 차별화한 한우고기 생산으로 자급률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 시장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 최우수 사업장 선정

해수부, 전국 50곳 평가·발표

해양수산부가 전국 수산물 도매시장 평가를 진행한 결과, 서울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해수부는 4일 전국 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 법인·공관장 등 총 50개소에 대해

실시한 '2017년 수산물 도매시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서울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최우수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선정됐다.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관리·운영 측면에서 전자송품장, 표준거래 정착 등 거래를 효율화하고, 간극 표준거래 단위를 추진하는 등 물류효율화

를 이루었다는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 사업장으로는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각각 선정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도매시장 평가 체계 개선과 우수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수산물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더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배식 받는 어머니모니터링단

제5기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이 4일 경기도 파주시 육군 제1보병사단 수색대대에서 배식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부, 2018 에너지전환 컨퍼런스 개최

오늘까지 코엑스 그랜드볼룸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전환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주요국 전문가 및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2018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를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공급 측면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전력 믹스 전환과 함께 가스·열·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를 포괄하는 에너지믹스의 최적화를 구현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33위)의 에너

지 저효율 구조 개선을 위한 산업·건물·수송 등 분야별 소비구조 혁신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 측면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의 융합을 통해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생태계 관점의 미래 에너지 산업 플랫폼 구현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부패할 기후환경에너지연구소장을 역임한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선구자인 페터 헤니케 박사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독일의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세종=최신용 기자